

## 국내 2차 전지 ETF 파보기 2편

ETF 마케팅 김수정  
sara.kim@miraeeasset.com

### Summary

2023-0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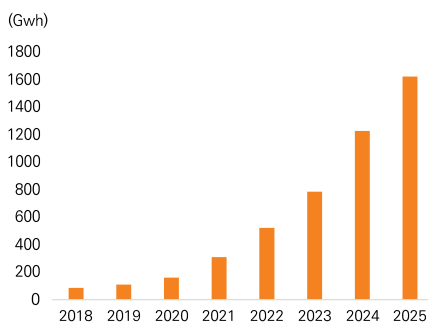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의 하락이 두드러진 5월이었다. 이전 ETForU를 통해 밸런스 있게 국내 2차 전지 ETF를 생각해보자는 이야기를 했다. 이번에는 국내 2차 전지 트렌드의 시작인 국내 2차 전지 셀 업체들에 대해 알아보자. 국내 2차 전지의 스토리는 사실 국내 셀 업체들이 수주를 받아서 그 수혜가 국내 밸류체인 전반에 퍼지는 이야기다.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각광을 받는 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지만 앞으로 셀 업체들의 성장성도 못지 않다. 중국과 미국의 고래 싸움에 어부지리를 누릴 수 있는 한국 2차 전지 셀 업체들에 비중을 늘리고 싶다면 TIGER KRX 2차 전지 K-뉴딜 ETF에 관심을 가져보자.

### 국내 2차 전지에서 셀 업체들도 봐야 하는 이유

이전 ETForU ‘국내 2차 전지 ETF 파보기 1편’을 통해 균형 잡힌 2차 전지 투자를 해야 함에 대해서 설명했다. 장기적인 성장성은 변함이 없다. 올해 봄에는 국내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각광 받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상승 트렌드는 국내 셀 업체로 부터 시작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내 2차 전지 셀 업체들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자. 국내 대표 셀 업체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온 (SK 이노베이션 지분 100% 자회사)이다. 국내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크게 각광을 받는 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지만 앞으로 셀 업체들의 성장성도 못지 않다. 2~3년 내 가장 직접적으로 셀 업체들의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성장 동력은 미국이다. 이 모든 수주는 국내 셀 업체들이 따오고 이에 따른 수혜를 다른 국내 2차 전지 밸류체인에 포함된 기업들도 함께 누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내 셀 업체들의 성장성, 그리고 현 상황은 국내 2차 전지 시장에 투자하고 싶다면 꼭 체크해봐야 하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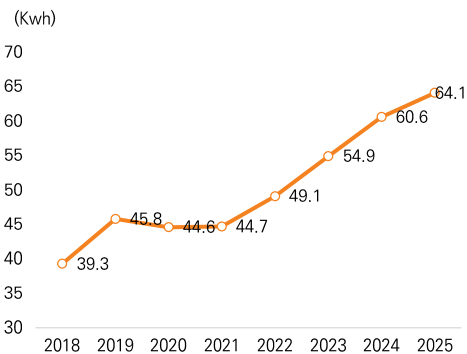
글로벌 배터리 수요의 주된 원인은 전기차다. 전기차 한 대당 사용하는 배터리의 용량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미국을 필두로 전기차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글로벌 배터리 수요 전망 역시 장미빛이다. 전기차, 2차 전지 트렌드는 등장한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높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혁신 성장 테마다.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를 국내로 가지고 오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게 국내 2차 전지 셀 업체들이다.

#### 〈글로벌 배터리 수요 전망〉



자료 : EV Volumes, 미래에셋자산운용 | 2022년 기준

#### 〈전기차 한 대당 배터리 탑재량 증가〉



자료 : EV Volumes, 미래에셋자산운용 | 2022년 기준

■ 집합투자상품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0~100%)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에 취득하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환율변동에 따라 외화자산의 투자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본문 중 특정 종목들은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투자 추천과는 무관합니다.

## 국내 2차 전지 ETF 파보기 2편

ETF 마케팅 김수정  
sara.kim@miraeeasset.com

## 미국과 중국의 고래싸움에 어부지리를 누리는 한국 2차 전지

지금 국내 2차 전지 시장이 크게 회자되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를 받는 이유는 미국 덕분이다.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서 한국이 득을 본 대표적인 사례가 2차 전지 산업이라 볼 수 있다. 원래 글로벌 배터리 산업에서 한국의 위상은 중국 다음이었다. 점유율도 언제나 CATL에 밀려왔다. 지금도 데이터 상으로는 그렇지만 앞으로 몇 년 후 판도를 바꿀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전기차 가격을 낮추기 위해 LFP 배터리 수요는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중국에서 만든 LFP 배터리를 미국 전기차 업체가 계약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니 그 손해가 국내 셀 업체들에게 전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누리기 위해 국내 셀 업체들은 본격적으로 미국에 투자를 늘리는 상황이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최근 북미 ESS에 3조원을 투자했다. 삼성SDI도 4월 25일 GM과 함께 30억 달러를 투자해 30GWh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고 발표했다. 향후 LFP 양산 부문도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SK온은 현대차그룹과 북미 JV(Joint Venture)를 설립해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테슬라가 Master Plan Part 3를 통해 LFP 배터리를 대거 사용할 계획을 밝힌 만큼 국내 셀 업체들의 미국 진출, LFP 배터리 개발 및 양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국내 셀 업체들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물론 중국이 LFP 배터리에 있어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당분간 미국과의 계약에 있어서 기지개를 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부지리는 국내 셀 기업들의 수주로 이어질 것이다.

## 〈 국내 대표 셀 업체들의 미국 진출 〉

[단독] 미국에 깃발 꽂는  
한국기업들... “5~6조원 투자해 공장 짓는다”

뉴스룸 | 최신기사

[尹국빈방미] 삼성SDI·美 GM 손잡고 한미 '기술동맹'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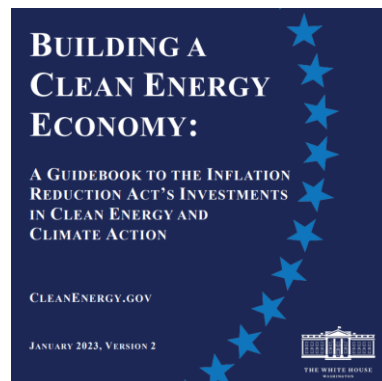
삼성SDI, 美 인디애나주 대표 배터리 기업 됐다

삼성SDI·GM, 뉴 칼라일에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고려

SK온, 음극재 中 의존도 줄인다...美 광물업체와 손잡아

자료: 매일경제, 연합뉴스, 글로벌 이코노믹, 한국경제

## 〈 미국 IRA 법안 〉



자료: 백악관

실제로 미국이 발표한 IRA를 보면 part 5 Investment In Clean Energy Manufacturing 부분에서 배터리 셀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어떻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기재해놨다. 이론적으로 국내 셀 업체들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우선 순위 업체는 미국 업체겠지만 국내 기업들이 소외 되진 않을 전망이다. AMPC(첨단 제조 세액 공제안) 효과까지 더해져 미국에 직접적으로 진출하는 국내 셀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 집합투자상품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0~100%)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취득하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환율변동에 따라 외화자산의 투자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본문 중 특정 종목들은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투자 추천과는 무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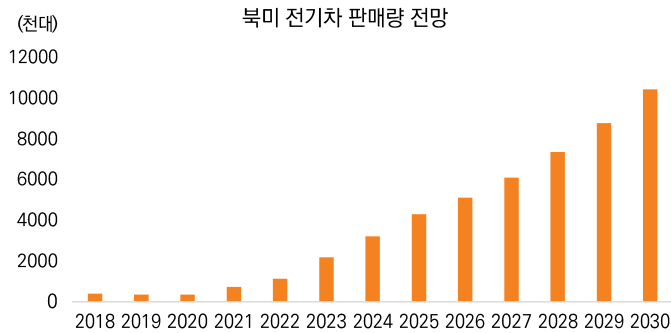
## 국내 2차 전지 ETF 파보기 2편

ETF 마케팅 김수정  
sara.kim@miraeeasset.com

### 미국이 필요한 배터리의 양은 엄청나다, 국내 셀 업체들이 가진 기대감

미국이 얼마나 대단한 시장이길래 이러는 것일까. 앞서 설명한 IRA도 중요하지만 우선 북미 시장의 성장성 자체가 엄청나다. 북미 시장에 전기차 침투율이 2030년까지 약 50%로 늘어난다고 가정을 하면 2030년까지 필요한 배터리의 양은 3.8Twh다. 배터리 셀 업체들의 가동률을 80%로 가정했을 때(IRA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가동률과 수출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연평균 1,200Gwh가 필요하다. 이 모든 배터리 수요를 국내 셀 업체들이 가져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pie 자체가 그만큼 커진다는 것이다. 2022년 대비 북미 배터리 수요는 7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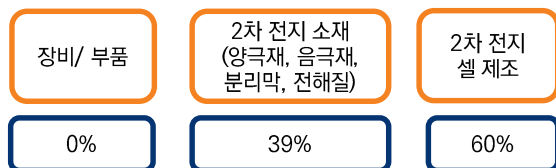
### 〈 2030년까지 북미 전기차가 늘어나면 필요한 배터리는 3.8Twh 〉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 2023.04.25

물론 2차 전지 셀 기업들만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니다. 이전 ETForU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앞으로 국내 2차전지 산업에 퍼질 트렌드는 전체 밸류체인에 수혜가 퍼질 수 있는 메가 트렌드다. 그럼에도 아직 국내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대비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았던 셀 업체들에게 더 집중 투자를 하고 싶다면 국내 2차 전지 ETF 중 셀 업체들의 비중이 더 높은 TIGER KRX 2차 전지 K-뉴딜 ETF를 생각해 볼 수 있다. 2차 전지 산업 내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선별해 투자하는 ETF인 만큼 셀 제조 업체들의 비중이 약 60%에 달한다. TIGER 2차 전지 테마 ETF는 국내 전체 2차 전지 밸류체인에 투자를 하는 상품이면서 소재 비중이 높은 상품인 반면 TIGER 2차 전지 K-뉴딜 ETF는 시가총액이 큰 셀 업체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균형 잡힌 투자를 하면서 방점을 어디에 찍는지에 따라 2가지 상품 모두 활용해 볼 수 있다.

### 〈 TIGER KRX 2차 전지 K-뉴딜 ETF 분야별 비중 〉



자료 : 미래에셋자산운용 | 2023.05.10 기준  
\*구성 종목 및 비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종목	비중(%)	분류
포스코퓨처엠	28.3	소재
LG에너지솔루션	24.0	셀
삼성 SDI	21.4	셀
LG 화학	11.5	셀
에코프로	4.0	소재
에코프로비엠	3.7	소재
SK이노베이션	3.3	셀
엘앤에프	2.2	소재
SK아이이테크놀로지	0.7	소재
SKC	0.7	소재

■ 집합투자상품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0~100%)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취득하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환율변동에 따라 외화자산의 투자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본문 중 특정 종목들은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투자 추천과는 무관합니다.

## 국내 2차 전지 ETF 파보기 2편

ETF 마케팅 김수정  
sara.kim@miraeeasset.com

### 상품개요

구분	TIGER 2차전지 테마 ETF
종목코드	A305540
최초상장일	2018년 09 월 11일
기초지수	WISE 2차전지 테마 지수
총보수	연 0.50% (집합투자업자: 0.43%, 지정참가: 0.01%, 신탁 : 0.03%, 기타: 0.03%)
과세내용	매매차익은 비과세 분배금은 배당소득세 과세 : Min(현금분배금, 과표증분) X 15.4%

구분	TIGER KRX 2차전지 K- 뉴딜 ETF
종목코드	A364980
최초상장일	2020년 10월 06일
기초지수	KRX 2차전지 K-뉴딜 지수
총보수	연 0.4% (집합투자업자: 0.35%, 지정참가: 0.01%, 신탁 : 0.02%, 기타: 0.02%)
과세내용	매매차익은 비과세 분배금은 배당소득세 과세 : Min(현금분배금, 과표증분) X 15.4%

\* 상기 명시된 총 보수와 함께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상품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0~100%)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환율변동에 따라 외화자산의 투자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본문 중 특정 종목들은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투자 추천과는 무관합니다.

## 리스크 관리 및 투자 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증권, 섹터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전체 투자 가능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추적오차 (Tracking Error) 위험	ETF는 추적대상지수와 유사한 수익률을 실현함을 그 투자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투자신탁보수, 위탁매매수수료 등 관련 비용의 지출 및 추적 대상지수 구성종목 변경에 따른 매매 시 시장 충격, 상/하한가, 거래정지 등에 따른 미체결 등 현실적 제한 등으로 인하여 추적대상지수와 유사한 수익률이 제대로 실현되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ETF의 수익률과 원화환산 추적대상지수의 수익률이 동일할 것을 전제로 하는 투자는, 추적오차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원본손실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해당 투자위험은 전체 목록 중 일부를 나열한 것으로, 상품 고유위험 등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상품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0~100%)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환율변동에 따라 외화자산의 투자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본문 중 특정 종목들은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투자 추천과는 무관합니다.

## 국내 2차 전지 ETF 파보기 2편

ETF 마케팅 김수정  
sara.kim@miraeeasset.com

## Compliance Notice

- 투자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은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투자 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TIGER ETF에 투자하기 전, 투자자 또는 잠재적인 투자자는 그러한 투자가 자신의 특정한 투자 요구나 목적 및 재무상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투자자문가와 상담하거나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펀드 가입을 결정하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자료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제작하였으며,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의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 기간 종료 후 연금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내용이나 향후 시장 상황 변경으로 전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문 중 특정 종목들은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투자 추천과는 무관합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3-0220호 (2023.05.25~2024.05.24)

■ 집합투자상품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0~100%)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환율변동에 따라 외화자산의 투자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본문 중 특정 종목들은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투자 추천과는 무관합니다.